**페스트 – 5주차 논제**

**자유논제**

**Q1.** **오랑 시는 페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을 이유로 도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염병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를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트가 유행하던 시절 방역수준은 현대사회보다 뒤쳐졌으므로 도시를 폐쇄하여 바이러스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  |
| --- |
| *시의 문을 폐쇄함으로써 생긴 가장 뚜렷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별을 맞게 된 것이었다. p.175 ... 이 질병의 무지막지한 침범은, 그 첫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 우리에게는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기쁨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p.176* |

**Q2.** **랑베르는 타루가 리외의 부인이 요양소에 있다는 것을 말하자 전에는 거절했던 보건위생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랑베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외의 부인이 자신의 부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랑베르는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리외를 보며 탈출하려던 생각이 공헌하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  |
| --- |
| *타루는 그를 따라갔으나 문을 나서는 순간 생각이 바뀐 듯, 신문기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리외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걸 아나요?”*  *랑베르는 놀란 몸짓을 했지만 타루는 이미 떠났다.*  *이튿날 꼭두새벽에 랑베르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시를 떠날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선택논제**

**Q1. 페스트는 공동체가 똑같이, 공평하게 겪는 고통이다. 페스트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판사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면서, 리위는 “하느님조차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p362)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연대, 유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모두 연대하고 유대하게 될까요? 소설에는 반대의 사례도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변화된 우리 사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생각하나요? 또 코로나 이후 이전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무엇을 었었을까요?**

집단의 성격에 따라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희생, 봉사, 협력 등을 추구하는 집단의 경우 고통을 겪으면 연대하고 유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나친 이익추구, 개인주의 의 색이 강한 집단의 경우 연대와 유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변화된 우리 사회, 공동체는 역학조사와 출입명부작성, 단계별 시행령, 백신도입 등 빠른 문제해결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수칙을 제시했고 시민들은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픈사람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비말차단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식은 코로나 시국이 끝난 후 계속되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도, 어색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얻은 것은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활동은 사람에 의한 것이며 인간이 부재한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모임이 단절됨을 느끼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사람이 자산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
| --- |
|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식량 보급이 어려운 지경에 이름에 따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 게다가 투기가 성행해서 일반 시장에 부족하지만 가장 긴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렸다. 그래서 빈곤한 가정은 무척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반면에 부유한 가정들은 부족한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페스트가 그 역할에서 보여준 것 같은 효과적 공평성으로 말미암아 시민들 사이에 평등이 강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페스트는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의 감정만 과격하게 만들었다. (p.183)* |

**Q2. 랑베르는 페스트가 퍼진 나라에 억류된 여행자였습니다. 도시가 폐쇄되어버린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리유의 입장이라면,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줄 것인가요?**

**증명서를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감염경로가 확산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
| --- |
| *랑베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선생님(리유)께, 제가 그 고약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한 장 써 주실 수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나는 그 증명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선생이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비록 안다고 하더라고 내 진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도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

**추가 논제 (답변 업로드 필수x)**

**Q1.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왜 전염병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  |
| --- |
| *이처럼 오랑 시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다. 보행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늘었으며, 심지어 대낮의 한산한 시간에도 가게의 휴업이나 몇몇 사무실들의 휴무로 할 일이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카페에 득실거리고 있었다. ….즐거운 잔치에 참가하고 있는 축제의 도시와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

**Q2 소설 속 페스트 상황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보건대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  |
| --- |
| *그는 리외에게 보건대 일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었다. 현재 다섯 개 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몇 개 반이 더 생길 것 같았다. ... "저도 그 조직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p.294 ... "나는 어떤 것이 내 직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랑을 택한 것이 잘못일지도 모르겠군요." p.296* |